

哲學 意義와 範圍 (四)

韓稚振

다른便으로 宗教와 哲學을 一致식히려고 한 事實도 일즉부터 잇섯스나 『폴레토』와 『아리스토틀』은 思索的으로 唯一神觀을 作成하였고 『스토라익』學派는 傳說的 英雄觀과 多神觀을 比喻로 哲學的 系統에 加入하였다. 『일렉산드리아[알렉산드리아]』 猶太 『과일노』는 舊約의 創造說과 希臘哲學을 一致식히려 하였다. 基督教는 哲學的 思想의 形式을 取하여 그 福音을 辯護하였고 그 敎理를 組織하였다. 그러나 基督教 神學家들은 信仰이 智識보다 優勝하다고 認定하였다. 中世紀에는 『스코라』哲學이 繁盛하였스니 이는 基督教의 敎理를 哲學的으로 建設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스코라』哲學은 一切 敎理는 合理的으로 證明할 수 업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自然神學과 默示的 神學을 區別하게 되었다. 默示的 神學은 理論으로 證明할 수 업고 다만 默示의 權威로 採用할 것 썬이라 하였다. 여기서 一部 學者들이 一致식혔다든 宗教와 哲學과의 反對는 다시 中世紀 『스코라』 哲學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現代哲學은 十七八世紀의 自然科學의 發展으로 因하여 그 內容上 充分하여졌다. 實驗과 觀察은 經驗的 智識의 根源인 것을 아는 同時에 數學은 經驗以上에 純粹한 理性的 智識을 提供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純理的 智識은 感覺的 經驗의 智識보다 더 價値를 是認함을 짜라서 哲學은 宗教的 問題를 分立하여 取扱하게 되었다. 차라리 宗教의 問題들은 等閑視하였다는 것이다. 十八九世紀의 唯物論은 宗教를 虛荒한 幽靈으로 看做하여 一切 宗教的 問題는 科學의 範圍밖게 두었섯다. 그러나 近者에 歷史上 特히 人種學上의 研究는 分明히 宗教的 觀念을 어느 社會나 團體를 勿論하고 사람이 모혀 生活한 데는 다 잇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런즉 宗教란 것은 人類의 固有한 思想인 것을 알 수 잇다는 것이다. 實로 宗教는 人類의 文明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잇섯다. 이와 가튼 重要的 地位를 占領하고 잇는 宗教를 等閑히 본다거나

無價値한 것으로 돌릴 수 없다. 完全한 人生觀과 宇宙觀은 人類 歷史를 政治나 科學上으로 支配한 宗教를 適當히 論學하여야 할 것이다. 哲學과 宗教를 一致시키려는 計劃은 그의 虛勞가 아니다. 過去의 公平한 哲學 研究는 宗教를 淨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科學的 世界觀과도 多少 一致하게 되도록 影響한 것이다. 宗教에 對한 分명한 智識은 人類의 經驗 全體를 組織하고 統一하려는 哲學에게 必要하다.

五. 哲學과 科學

哲學이 希臘에서 처음 發生할 때에는 理論的 科學과 別로 다른 것이 없었다. 智識을 얻고저하는 慾望은 다같이 哲學과 科學의 特色이었다. 自然에 對한 科學的 研究는 大體로 哲學家의 職分이었다. 『아리스토텔』은 當時에 自然과 人生에 對한 一切 智識을 發達하고 組織하는 때에 여러 가지 學問을 次第로 區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星學, 物理, 化學, 數學, 生物學 등의 諸 特殊한 科學이 分立하게 되고 떨어져 그 研究의 方法도 各各 달라지게 되었다. 이리케 學問이 分□됨에 依하여 一個人으로써 그 여러 種類의 學問을 學得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學問의 分派는 各種 科學을 細密히 發達케 하였으나 一切 智識의 統一性은 等閑視하게 되었다.

十九世紀 中葉에 諸 特殊科學家들이 哲學 研究의 方法을 蔑視함으로 因하여 一切 智識의 綜合과 統一은 더욱 念外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科學者의 態度는 從來 哲學이 『諸科學의 科學』이라는 自稱 要求에서 생기인 것도 事實이다. 哲學은 一般 科學的 智識의 價値를 判決하고자 할 뿐 아니라 自然의 根本的 問題는 哲學을 通하여서만 確實히 解決되리라는 것을 主張하였다. 科學家들은 이 過度한 哲學의 要求를 反對하는 一便에 觀察과 實驗으로써 發見한 事實과 法則은 哲學的 思考가 업시도 妥當하다는 것을 極力 指摘하였다. 哲學까지라도 이 科學的 事實에 根據하여야 價値있게 된다 하였다. 十九世紀에 自然科學과 工學의 長足發達은 多數 研究者들노 하여곰 觀察과 實驗에 根據한 研究法과 數學만이 眞正한 智識을 擴張할 수 있는 것과 哲學的 研究法은 無用하다는 것을 主張하게 하였다.

自然科學의 方法은 心理를 研究하는 데도 應用하게 되었다. 心理學은 全혀 客觀的 自然科學의 一部가 되고 말았다.